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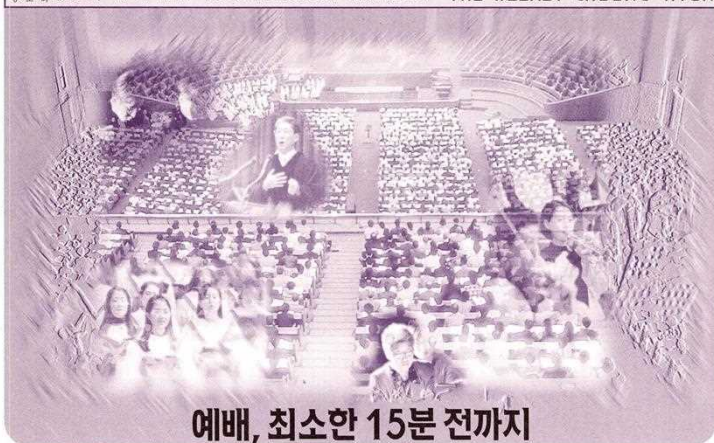
나의 힘이 되신 예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골로소서 3:21)

발행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문동 665-1 ☎ 02-552-8200 © 2004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예배, 최소한 15분 전까지

신령한 예배를 위한 준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허겁지겁 예배당에 들어오거나 예배가 시작된 후에 슬그머니 들어와 자리에 앉는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돈된 마음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뵈는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물론 주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은혜를 나누어주시길 것이다. 하지만 슬픈것으로 예배에 지각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다. 생각해 보자.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준비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우선, 일상에 켜들어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절하며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충분히 간구할 시간에 예배 전에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15분 전까지는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특별히 주일찬양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각 부서에서는 예배의 정신을 유념하여 최소한 4시 40분까지는 모든 모임을 마쳐서 주일찬양예배에 성도들이 늦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4:24).

돌아서온 금방 잊어버리지만... 단기선교를 위한 언어훈련

"너무 힘들어요, 외우고 외워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요." 단기선교를 위해서 언어훈련을 받는 성도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다. 사실, 솔직한 말이요 옳은 말이다. 돌아본 적도 없고 말해 본 적도 없는 외국어를 배우고 암기하는 일이 어찌 힘들지 않았겠는가! 연로한 성도들에게는 더 그럴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아는 우리로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 언어훈련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두 가지 재안을 하고 싶다.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사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외국어를 잘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4:13)라는 믿음으로 언어훈련에 적극 참여하자는 것이다. 2004년 단기선교팀들이 구성되고 선교할 대상국가 선정되면서 언어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힘든 훈련이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함으로써 행복한 훈련이 되도록 하자. 자세한 내용은 5면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뽕엘로 올라가는 아픔의 심정으로 예배위원회 헌신예배(4일, 수요일2부예배)

사람의 마음처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또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해 놓고서도 어느새 새로운 생활에 폭 빠져 잊었던 마음으로 사는 때가 많은 우리이다. 뽕엘에서의 뜨거운 서원을 잊어버리고 가난한 땅에서 미적거리던 아팍처럼 행동하는 우리이다(창 28:33). 이러한 아팍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일어나 뽕엘로 올라가서...거기서 단을 쌓으라"(창 35:6).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헌신하라는 말씀이다.

그렇다. 매일 첫째 주 수요일2부예배시에 있는 모든 헌신예배는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새롭게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4일)에는 예배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려지는데, 예배위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은 마음과 헌신을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예배를 드리시기 바란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전반기에 실시될 각종 교육훈련

교육훈련연구원에서 주최하는 2004년도 전반기 각종 교육훈련 계획이 당회를 통과하였다. 교시양성부와 찬양대원 양성부는 지난 해 후반기에 개편된 새 교과와 정에 따라서 3월 14일부터 12주간 동안 주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고, 주간성경공부는 지난 해 후반기 과목에 '출애굽기', '사도행전', '사사기' 강의가 신설되어 총 8개 과목으로 3월 16일부터 12주간 화요일 저녁(출애굽기, 빌립보서, 느헤미야)과 수요일 오후(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사사기, 에베소서)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주간충현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예비 중학생들을 위한 은혜의 잔치 중등1부 겨울수련회(2일~4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주제를 놓고, 2004년도 중등1부 겨울수련회가 이번 주 월요일(2일)부터 수요일(4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열린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겨울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직원이라고 빠질 수는 없지요" 교회 상근직원들의 단기선교 열정

교회 상근직원들이 단기 선교를 위하여 팔뚝 물쳤다. 지난 해 연말부터 일제감지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팀을 구성한 이후,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직원 예배 시에 단기선교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 시간을 활용하여 팀 훈련 및 기도예배를 하고 있다. 세 분의 장로님을 팀장으로 하여 각각 열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상근직원 단기 선교팀은 3월 이내에 교대로 선교사역을 할 예정이며 그 중 첫 팀이 2월 9일에 출발한다. 상근직원들의 선교사역에 성도들의 관심과 뜨거운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CMTC 일정

1 교시(18:10~19:10)	장소
선교의 성경적 기초	갈릴리움
2 교시(19:20~20:20)	장소
충현교회의 선교정책	갈릴리움

2월 CMTC 오늘 찬양예배 후 갈릴리움에서
(언어훈련 일정은 5면 참조)

CAREFULLY LISTEN

"If anyone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And He was saying to them,
 "Take care what you listen to, By your standard of measure it will be measured to you;
 and more will be given you besides. For whoever has, to him shall more be given;
 and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shall be taken away from him." (Mark 4:23~25)

Many Christians go to church on Sunday, attend special services or Bible classes on other days, listen to Christian tapes, CD's, or radio programs, and read Christian books. Within a given week, they can hear a variety of spiritual messages from so many different sources. In today's Bible verses, Jesus Christ gives us some excellent advice. He says, "take care what you listen to". This advice does not come from teachers, parents, or medical experts, but strictly from Jesus. This Jesus, who died for you and loves you more than anyone else can, wants to advise you to be very careful about what you hear. Often times, we do not put a lot of active thinking into what goes in our ears. We like to hear what we hear in music, preaching, dramas, and movies because it makes us feel good. The important thing is hearing the truth.

Our spiritual food is not about what we like. It is about the truth. We need to understand that not everything we hear is from God (see 1 Jn. 4:1). There are many different prophets in this world, even within our own church, and we cannot believe every spirit. We have to test whether or not the words we hear belong to God. No one should believe something because it sounds good or is popular. Nor should we believe something just because we like it and it corresponds with our lifestyle. No, Christians have to test whether or not the words they hear are from God or not. If someone does not teach that Jesus Christ is from God, even though they talk about good things, they are false prophets. The words of false prophets come from the devil. Job 12:11 reminds us, "Does not the ear test words, as the palate tastes its food?" I want you to use your ears very carefully.

Jesus said that His sheep hear his voice, "A stranger they simply will not follow, but will flee from him,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voice of strangers" (Jn. 10:5). How are your ears? Can they distinguish the voice of Jesus from the voice of others? If someone tells you that believing in Jesus will make you a lot of money, bring financial success to your family, or make you well respected, do you believe it? Whenever our physical eyes see something new, sparkly, and shiny we tend to think it is truth. We carefully listen and easily follow in that direction. That is why it is so important that we use our ears only to hear truth. Matthew 13:23 says, "And the one on whom seed was sown on the good soil, this is the man who hears the word and understands it; who indeed bears fruit and brings forth, some a hundredfold, some sixty, and some thirty." This parable by Jesus presents truth about the kingdom of God in this present day. If you listen to the Word of God, you will be fruitful.

A very important part of Jesus' advice to take care what you listen to is "By your standard of measure it will be measured to you" (v. 24). The focal point of measurement is on the listener, not the speaker. If you do not listen, you cannot even calculate. How much do you appreciate hearing God's word? Right now, are you really listening for a heavenly voice or are you just listening for my voice? How well do you measure? Use your ears and heart

seriously. The result of sermons is so important. You can walk away with something little or you can receive eternal blessings.

How interested are you about the Word of God? Those of you who come to church every Sunday, are you coming as a listener or speaker? Many people carefully listen because they want to catch errors in the preacher's sermon. They walk away without even grasping the sermon's subject. These people dwell on finding fault not truth. They hear one little word misused and they cannot let it go. Right now, are you really listening for the Word of God? Are you really seeking the truth? Are you hungry for the living Word? Are you happy for salvation? Are you looking for peace and joy?

When you listen for God's Word because your measurement is so deep, you will cry out in a loud voice for your sin and repentance. If you do that, I am confident you will have wonderful salvation for your forgiveness. That is why the Word of God is so very important. It calculates your future life. If someone is not serious about the Word of God, if he or she is not a listener, they will not be able to understand real happiness and joy. They will not be able to remember God's Word. When you do not carefully listen, you miss the truth. However, if you listen, if you have deep measurement, you will find God's promise.

What is God's promise? Here is the beautiful part, "and more will be given you besides". Do you want to listen more and more? Do you understand, more and more, what you are hearing? When you listen for the truth, do you want to proclaim that truth to other people? If you do, you will receive the glorious gospel in your life. Not only that, but you will receive eternal blessings from heaven. As a sinner, you will become holy. You will change from death to eternal life, from a child of the devil to a child of God. You will receive real life, which is worth more than anything this world has to offer.

This sermon is so important. Do you believe it? How many sermons have you missed? How many sermons have you analyzed for the wrong reasons? Listen carefully to these word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came into being through Him, and apart from Him nothing came into being that has come into being.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Jn. 1:1-4).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saw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n. 1:14).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Jn. 1:12). Are you listening?

Christ your Lord is waiting now. Let Him in. Let Him in. See the thorn upon His brow. Let Him in. Bless the Lord, I now believe. Enter in. Enter in. Joyfully I receive you. Enter in. Enter in. My dear friend, use your ears to listen carefully! 🙏

다움주일 설교

주의해서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막 4:23~25)



김성원 목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특별집회나 성경공부모임에 참여하거나, 테이프에 녹음된 설교를 듣거나, 기독교 방송을 듣거나, 기독교 서적을 읽습니다. 그리하여 한 주간 동안 다양한 영적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충고를 해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것은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의사들의 충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충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충고하십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흔히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듣는지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 음악이나 설교, 연극이나 영화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우리 영혼에 양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 영혼에 양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진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거짓선지자를 조심하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요일 4:1).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충현교회만 해도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고 해서 무작정 믿고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야 합니다. 감명 깊은 설교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무작정 믿지는 마십시오. 좋게 느껴지는 설교일지라도 여러분의 생활 스타일에 딱 맞을지라도 무작정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시험하십시오. 어떤 설교자가 훌륭한 내용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그 사람의 가르침은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12장 1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임이 사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음미하여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요 10:5). 여러분의 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귀는 예수님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며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믿으십니까? 흔히 우리는 뭔가 새롭고 재치 있고 반짝이는 것을 보면, 무턱대고 그것을 진리라고 단정합니다. 주의 깊게 듣다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진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은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배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말씀을 받는 올바른 태도

“무엇을 듣는가 삼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충고 다음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24절 참고). 여기에서 헤아림의 초점은 말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헤아릴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제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잘 헤아리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진지하게 사용하십시오. 설교를 듣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작은 일 때문에 진리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영원한 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매주일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로 오십니까 아니면 뭔가 말을 하려고 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자의 결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설교의 주체도 모르는 채 예매당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늘 설교자의 결점을 찾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한 가지 단어를 잘못 사용하더라도 하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비난해 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참으로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해 하십니까? 구원을 즐거워하십니까? 평화와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헤아리며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은 죄를 사함 받고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참된 행복이나 기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듣지 않은 말씀은 금방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깊게 헤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받을 때 얻는 축복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더 받으리라”(24절 참고). 여러분은 점점 더 많은 진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듣고 있는 말씀을 점점 더 많이 이해하십니까? 진리를 들을 때,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복음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원한 복락도 얻게 될 것입니다. 죄인인 여러분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사방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할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설교를 믿으십니까? 듣고서도 될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설교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쓸데없는 권경으로 비난했던 설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제가 인용하는 성경 말씀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1~3).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요 1:12).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여 들이세 가사편을 쓰셨네 모시여 들이세 /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가 주의하고 또 주의하십시오. ■

정로 칼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원웅 철
(장로,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

요즘 메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어린이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믿지 아니 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세”라고 말 할 정도로 너무나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성직이나 입시에 부담을 느껴 자살을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사소한 갈등이나 유혹으로 쉽게 범죄의 길에 빠져 살인, 강도, 폭력 등에 가담하면서도 죄책감도 못 느끼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거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볼 때 교회의 어린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 하리라”(잠22:6). 이 말씀처럼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 하므로 어른들의 그러한 범죄로 미련에 방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교회조차도 복음이 흐려져 가고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된 참된 천국일꾼을 어려서부터 키워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린이 교육은 크게 가정교육, 학교교육, 교회교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가정으로부터 비뚤어진 어린이들, 부모가 바쁘고 돌보지 못하여 만질 가는 청소년들, 이기주의 속에서 정경만 강요당하고 그래서 뒤쳐진 어린이는 계속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교육...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가정과 학교로부터 소외당하고 비뚤어진 현실 속에서 어린이들에 대해 우리교회가 감당할 책임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아주 중차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는 것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총현교회는 이러한 어린이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교회설립 10주년부터 “천국일꾼을 기우자”라는 표어 아래 어린 생명들의 신앙교육에 힘써 왔으며 또한 점차 우리교회뿐 아니라 이 민족을 각 분야에서 신앙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십자가로 무장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천국일꾼양성’을 5대목표 중 하나로 세우고 지금까지 온 교회가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교육위원회는 갖 태어난 신생아로부터 중학생까지의 신앙교육을 맡고 있으며 한문의 목사님, 세본의 장로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있고 총 9개의 교회학교에서 약2,200여 명의 학생들이 지도교역자, 부장, 담임부장을 비롯한 450여명의 교사와 함께 매 주일 예배드리며 양육 받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신앙을 위해 만0~2세는 영아부, 만3~4세는 유아부, 만5~6세는 유치부에서 예배드리며, 취학 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유년부, 3~4학년은 초동부, 5~6학년은 소년부에서 공부하며 각과 있습니다. 또 사순기인 중학생은 각 학년별로 중동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각각 전일 목사님의 지도 하에 매 주일 예배드리며 신앙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드릴 것은 우리 총현교회는 어린이들의 교회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년부 이상 부서에 부목사님을 전임지도 교역자로 배치하고 해당부서의 교재연구, 교재발간, 맞춤준비, 교사 및 학생심방, 전도 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분반공부 시 사용하는 성경공부 교재는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위임목사님의 설교에 근거하여 담임교역자가 연행과 부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배우기 쉽게 전문성을 살려서 제작하는데 복음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되어 타 교회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사고 또 교재 요청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재로 교사 기도회 및 모임시간을 통해 먼저 교사들을 교육하고 교사는 분반공부시간에 어린이들에게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실제 적용운을 시키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복음만을 가르치게 됩니다.

또 각 부서는 새 천국 초정집회나 학교전도를 통해 양적인 성장을 꾀하는 동시에 담임교역자와 교사의 적극적인 심방활동 및 밀착관리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신앙을 지도하며 참된 천국 일꾼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먹는 것과 선물, 상봉 주는 일은 줄이고 심방과 전도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둔 것도 물질만능시대에 관례적이고 고질적인 물질을 매체로 하여 교육하던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학생개개인을 가르치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년에 두 번 있는 계절학교를 연례행사로 그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또 더욱 알차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 교회학교가 공동주제를 가지고 부서별로 특성에 맞게 실시하는데 지난 겨울 계절학교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를 일선에서 담당할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알찬 계절학교를 준비하기 위해 교사교육을 강화하여 지난 1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교사 강습회를 실시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정병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심무교육을 익혔고 미참석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전원 새로운 각오로 금년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입직되는 교사들은 3월부터 시작되는 교사 양성부 등록을 통해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자질향상을 꾀하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한번이라도 다녔던 사람은 어른이 되어 비록 주님을 떠난 생활을 할지라도 어렸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 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정성교육 받은 어린이는 결코 만 길로 가지 않습니다. 훗시만 길로 가더라도 곧 돌아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과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어린이 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한 까닭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나 이웃아이 중에 교회학교에 나가지 않는 어린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만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바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학교에 보내십시오. 교역자와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이러한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공부 때문에, 학원 때문에, 집이 멀어서...” 하는 이유는 장래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복음으로 무장된 천국일꾼으로 자녀가 양육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또 교회학교에 나가는 학생들을 두신 학부모님들도 교회교육에 관심을 가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천국일꾼으로 양육되어가는 과정에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이나 교역자님과 끊임없는 교감을 가지고 동참바랍니다.

천국일꾼양성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사로 봉사하십시오. 내가 가르친 아이의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며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하늘의 상급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도는 교회학교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는데 450여 교사들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 밖에 잃은 양을 전도하여 양적성장을 꾀하는 동시에 교회 안에 어린 양이 만 길 가지 않도록 밀착 관리하는 질적향상을 이루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이나 기뻐하시는 천국일꾼을 많이 양성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틀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치지 아니하느니라”(눅 15:4b).

CMTC 언어훈련 일정(매주일) 장소

언어	시간	강의실	언어	시간	강의실
몽골	15:20-16:00	제1교육관 309호	우즈베키스탄	15:20-16:00	제1교육관 204호
러시아	"	베다나홀	방글라데시	"	제1교육관 304호
루마니아	"	제1교육관 305호	*알바니아	"	제1교육관 208호
중국	"	제1교육관 405호	*미얀마	"	제1교육관 408호
카자흐스탄	"	제1교육관 202호	*리소스	"	제1교육관 409호
인도	"	제1교육관 307호	*파키스탄	"	제1교육관 410호
우라과이나	"	제1교육관 301호	영어(초급)	18:10-19:00	제1교육관 401호
스리랑카	"	본당112호	영어(중급)	"	제1교육관 204호
불가리아	"	제1교육관 310호	영어(고급)	"	제1교육관 206호
베트남	"	제1교육관 403호			

* 캄보디아, 미얀마, 리소스, 파키스탄 등은 Tape으로 대체 강의합니다.
강의실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언어 훈련 강사 확보 및 추이를 보아 상설하겠습니다.

★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선교지	팀	팀장
2월 3일(화)-2월 10일(화)	D	대학부	창영일
2월 3일(화)-2월 12일(목)	D	대학부	노영한

* 선교위원회 방침으로 인하여 국기편은 부착하지 않습니다.

“2004 중한 단기선교” 이렇게 진행됩니다(2)

“이렇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모든 일들은 분명히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신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신다. 따라서 2004 중한 단기선교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훈련하여 준비된 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합당하게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 하며 분명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언어 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1. 모든 입원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사항

- ① 본 교회등록 1년 이상 된 세례교인
- ② 공 집회출석(금요일집회) 및 성일주 생활을 하는 성도
- ③ 1인 1명 이상 전도한 성도
-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성도
- ⑤ CMTC 및 팀훈련을 마친 성도
- ⑥ 신체에 질병이나 이상이 없는 성도

2. 모든 입원자들은 팀훈련과 언어훈련과 영성훈련에 철저히 힘써야 한다.

- ① 팀훈련은 교구목사의 지도하에 팀장이 주도한다. (20회 이상)
- ② 언어훈련은 기본언어와 전도언어를 집중적으로 익혀야 한다. (40여개)
- ③ 영성훈련은 팀 훈련시와 선교기도회 시간(주일 오후4시)을 통하여 갖는다.

3. 파송과정

- ① 팀장청정-② 나라 및 지역 결정-③ 팀구성-④ 팀훈련 및 언어훈련-⑤ 1차 면담(2개월 전)-⑥ 2차 면담(1개월 전)-⑦ 3차 점검(2주일 전)-⑧ 출발

(선교위원회의 제정)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

요즘 들어 국내 외국인들을 위한 선교가 무척이나 힘겹게 느껴진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인하여 비자를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속의 손길에 미치지 않는 곳으로 숨기도 하고 강제추출을 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직장의 일손이 부족해 휴일과 주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젖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선교부 내에서도 인원이 많지 않은 이슬람권의 팀의 경우에는 더욱 위하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란팀에서는 고용허가제의 한파로 인해 보통 한두 명, 어떤 날은 한명도 오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함께 성공공부하며, 성실하게 통역을 맡았던 S형제 역시 불법체류자의 신분 때문에 경기도 한 공장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을 일해도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불법 체류자의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성경 공부하면서 아직은 온전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과 성경의 여러 부분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고난하던 형제였기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S형제를 심방을 갔을 때, 무슬림들이 좌악으로 금하는 술에 약간 취해 푸념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이란에서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로 메시에 성실하고 정화했던 S형제가 '이제는 경찰에 빨리 잡혀서 이란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술에 취해 불법체류자로 고된 동동을 해야 하면서도, 저임금의 처지를 한탄하며 망가져 가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저러왔다.

양육으로 시간과 공을 많이 들였던 S형제의 자포자기한 모습 속에 어찌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다. 예배 중의 말씀을 정화하게 이란으로 통역하는 것이 어려워, 말소로 변화된 한사람의 개종자가 절실했다. 그래서 S형제의 양육이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 생각하였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하면 S형제를 개종시키고 그 통해 이란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고용허가제의 여파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나는 한사람이 변화하기에는 시간과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고 엄도리게 하셨다. 이 일을 계기로 한사람의 헌신된 개종자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비록 전도의 대상이 어릴 때부터 이슬람 문화 속에서 자라왔던 그들인지라 허공을 치는 것 같을지라도, 끝내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으며 외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망과 실패와 좌절을 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연히 일어서야 할 것이다. 특별히 고용허가제로 인하여 어려워진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선교부를 위하여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한다. "그러므로 내가 담을정하기를 향한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전 9:26-27).

(관영일 - 외선부 이만림 전사)

우리의 심령에 복음이 있기에

캄보디아는 90%가 불교로 복음이 10% 밖에 전파되지 못한 불모지의 땅입니다. 위의 단기선교를 지원하면서 많이 감동했습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는 복음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예배를 준비하고 도왔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우리 나라와 사상과 문화가 많이 다른 곳입니다. 게다가 오랜 내전으로 무기를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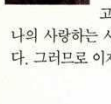
저는 그곳을 바라보며 오히려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그곳에 관한 정보도, 언어를 가르쳐 줄 교사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항상 저의 마음을 두렵게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능히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라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그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 중 486장 찬양을 드리다가 '옛 아픔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출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내 힘 되시고 내 만족함입니다'라는 고백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복음이 있기에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 직원으로 구성된 저희 팀은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오려고 합니다. 저희 팀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윤호(호사, 캄보디아 단기선교 직원/AM)

고등부 겨울 수련회 후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자”



주님 안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더욱 은혜로웠던 이번 겨울 수련회. 지에게 있어서 이번 겨울 수련회는 그동안의 수련회와는 달랐습니다. 이럴듯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수련회도 많이 참석하고 기도도 했지만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왜 날 안 만나 주실까? 믿음이 부족한가?’ 하고 마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 이런 이리석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겨울수련회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하지 못했던 나의 죄들을 일일이 다 끄집어 내주시며 회개 기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런 죄인까지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면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감사해서 정말 눈물로 찬양 드려야만 하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1학년 때는 엔지 귀찮고 가기 싫어서 선행생에서 권유해서도 별로 내키지 않았던 단기선교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겨울수련회에 가기 전에는 단기선교를 갈까말까 망설였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을 알고 단기선교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해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하지 못한 주위의 친구들도 하루빨리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련회 때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며 이번 겨울수련회 표어였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자’라는 말씀처럼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심재승(고등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자”라는 표어로 고등부의 겨울 수련회는 열렸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령의 의미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물이 대신 지고 죽는 것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완전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이 그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고 그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은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련회의 내용을 통하여, 그 동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성소가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성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는 씻겨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섞여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저는 세상 속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이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저속에서 울부짖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이윤기(고등부)

충헌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불행한 모든 거저된 모습들을 보시고, 인간들의 의로운 행위로만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무 흠없고 깨끗하고 정결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더러운 죄악들도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분과 하나님이 결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b).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나를 못박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의 모습과 고관함을 다 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죽여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을 덧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정우민(중학부)

의지하는 기쁨

조 종 헌 (중등2부 교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주 기쁜 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와 은혜를 나눠주고 쓰임 받는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질때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고등부를 졸업하고 중등2부에서 교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고등부에서 있을 때는 짜여진 틀에서 움직이다가 섬기고 이끌어야 하니 생각과는 달리 힘든 점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껏 나의 자아와 열성으로 버티고 보자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지금까지의 내 삶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아플 때가 많고, 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지칠수록 밟아 올리는 사실을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일들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때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사랑과 은혜의 필요로 되며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다리가 아픈 지체입니다. 제 몸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나아가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나도 저기에 나아가 영광드리고 싶는데...”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러나 금방 지쳐버리고 다리가 아파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것이 좋은 저에게는 의지해서 나아갈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터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은혜, 사랑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물어보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에 은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생각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아파하는 쓰라린 실정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의지할 분도 안개에서 안타까워 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 왔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종교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행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자신들의 몸을 혹사시키는 고령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말을 들을때 정말 슬픈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가로부터 사랑받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인간이 만든 지식의 신들과 문화의 신들에게 의지하니 안타깝습니다. 이번엔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팀원 모두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하나님 의지함을 흠뻑 체험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지하며 도움을 얻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라는 말씀이 정말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의지할 때 힘들텐데 물어 볼 때 생각해 보면 “나도 그 아픔을 안단다.” 그대 나를 의지해라”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관하시는 데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음의 길을 걸을시다 ①

왜 우리는 복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향해 모든 초점이 고정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야말로 복음에 의해 창조된 영적 공동체이며 복음을 통해 생명력이 부여되는 주님의 몸이며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믿음이 깊어질수록 구원받은 주님의 몸이다. 따라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이것만이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기준이다. 그러므로 우리 총현교회 역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교회 역시 참된 교회가 되는 유일한 근거는 엄정하게 큰 예배당도 아니고 수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일한 신앙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가 복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복음이야말로 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믿음에 대한 표현이며 이웃을 최고로 사랑하는 최상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실천하는 복음은 마지못해 행하는 수동적인 율법이 아니다. 그 반대로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행하는 자발적인 은혜요 적극적인 사랑이다.

왜 그런가?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며 복음이야말로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인생들에게 다시 생명을 부여해 주는 가장 귀한 선물요 사방인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녹아난 자들이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기쁨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전하는 것을 기뻐한다. 가깝게는 내 주변 이웃들에게 말하게 천하 만민을 향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우리 총현교회는 이 길을 걸어야 한다. 비록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기쁜 마음으로 묵묵히 꾀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총현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국(국사, 2교구 지도)

다름 주일 찬송.....

316장 “목마른 자들아”

아일랜드의 시인이요, 작가인 이 찬송시의 작사자 토마스 무어(Thomas Moore, 1779-1852)는 32편의 찬송곡을 썼는데 이 찬송은 1816년 편된 ‘성가집(Sacred Songs)’에 실렸던 것으로 복음적인 찬송곡이 만들기 위해 미국의 종교음악가 토마스 헤이스팅스(Thomas Hastings, 1784-1872)박사가 몇 군데를 수정하여 내 놓은 것이다. 작곡가 사무엘 웨브(Samuel Webb, 1740-1816)는 1740년경 런던에서 오르가니스트 칼 바보우트로부터 음악 지도를 받은 후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했다. 1792년 런던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있었던 웨브가 그의 ‘경문가 수집(Collection of motets)’에 처음으로 이 찬송곡을 실었다. 각 절에서 묵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절: 주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시기에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께로 나오면 목마른 자의 목을 축일 수 있다.

2절: 이 샘에서 나는 물은 온 천하에 두루 흐르기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와서 마실 수 있다.

3절: 오한복을 4절에서 예수님과 사미타리 여인과 그의 만남에서 보듯이 예수에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솟아 나오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기 때문에 결코 갈증이 없다.

4절: 생령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이 축복은 그의 권능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찬양위원회)

교회탐방①-24시간 연속 기도회

기도의 불길

태초부터 하나님은 여인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을 만드셨고 오직 그에게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고유권을 부여하셨다. 그것은 잉태와 생산이다. 만약 여인들이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불행하게도 어머니란 이름으로 불리지 못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과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전 인생을 결코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의 거룩한 일을 잉태하기 위한 어머니들의 역사가 있다.

1991년 교회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다. 이때 권사님들 사이에 기도해야한다는 생각이 초용이 먼저 나왔다. 마음을 모은 권사님들은 성령으로부터 재화한 작은 기도의 불씨를 품고 은밀하게 기도실로 들어갔다. 이 기도의 불씨를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비장한 각오와 함께,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기도의 불씨는 무릎에서 무릎으로 옮겨가면서 단 한번도 꺼지지 않았다. 기도의 불씨는 눈물을 먹고 점점 타올랐다.

그러기를 십수 년, 기도의 불씨를 한결같이 잘 간직하는 일이 쉽지않은 않았으리라. 모든 권사님들은 자기담당 시간이 되면 일단 일을 중단하고 달려 왔다.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회회장님들은 기도실에 세워 놓은 안테나에 주파수를 맞추고 전경에 잠깐 끄고있을 이 귀를 기울여야했다. 권사님들은 천하가 참된 적막한 시간에 몰로 깨어 기도하다가 물기 어린 눈으로 교회의 새벽 마당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는 동안 세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이 기도의 불 앞에서 상처를 치유 받으며 자를 마음어 감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믿음의 아버지인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릴레이로 주자로 나섰다. 지금까지 그득하게 달려온 권사님들의 기도의 바통을 받겠다고 든 단단 손을 내밀었다. 더욱이 힘든 새벽 시간에 당당히 기도실을 지키겠노라는 선언과 함께, 이제 연속기도운동은 전교회의 초종이 확신되어 가고 있다.

이제 기도의 불씨를 지피는 해산의 시간은 지나고 24시간 연속기도회와 불길은 점점 더 타 오르고 있다. 그리하여 주의 선하신 역사하심에 의지하는 간구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않고 기도하라 법사여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찬양위원회)

♡ 교구 안에서 만난 예수님 ♡

예수 안에서 한 구역식구들

우리 교구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지역적으로 경기도까지에서 교구 일꾼이나 봉사하시는 분이 아니면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구역식구들 외에는 잘 모르는 분이 많다. 구역에대 공과공부를 하며 다음주 설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같은 말씀이지만 관점에 따라 전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에 놀랐다. 늘 나는 말씀이지만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는다. 구역공과본문이 다음주 설교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며 공부를 하면 주일 예배 때 말씀이 다 잘 깨달아져서 감사하다. 그리고 구역식구들과 서로 말씀을 읽고 나누고 그 말씀을 생애에 적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어쩌다 구역예배를 한주다 못하기 못하면 그다음 만남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2004년 새해들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역예배를 드리지 못하기도 전화 삼합을 했다. 각자 가정에서 기도 제목들이 쏟아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목소리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함이 느껴졌다. 우리는 권사님들께 기도 요청을 하고, 구역식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은구역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외에는 없음을, 우리를 구원하시나 도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알기에 주의 이름으로 올레도 믿음의 한 가족인 구역식구들이 성령찬미한 복된 한해가 되기를 기도한다.

정국원(집사, 9교구)

세 · 가 · 축 · 을 · 한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81	장영제	1 장년부	최귀재(1)	100	최희진	7 청년부	116	최희영	2 장년부	이인성(2)	
85	김진희	1 대우부		101	김원진	10 청년부	배승훈(18)	117	최정연	2 청년부	이인성(2)
86	이종용	1 장년부	이화재(6)	102	조상훈	13 장년부	송은주(14)	118	최진애	2 대학부	이인성(2)
87	김정숙	1 장년부	이화재(6)	103	박성현	13 청년부	김영달(2)	119	이성호	7 청년부	이인성(2)
88	이진우	1 대학부	이화재(6)	104	방건호	10 청년부	조한관(19)	120	오경영	7 청년부	이승일(7)
89	이민우	1 대학부	이화재(6)	105	서은원	14 청년부	김정훈(1)	121	이광수	10 청년부	신광희(6)
90	신영자	1 장년부		106	최환근	10 고등부	강재우(4)	122	니무라미리	10 청년부	신광희(6)
91	이승훈	2 장년부	전종훈(2)	107	강성현	10 대학부	김진관(9)	123	태두진	11 청년부	함정희(2)
92	이희준	2 장년부	최우자(2)	108	유승민	10 청년부	최희(18)	124	이예은	19 중등부	정국원(5)
93	주옥순	4 소모부	오은도(4)	109	황준호	10 청년부	황정환(4)	125	김지은	19 대학부	유종욱(4)
94	김상훈	5 청년부	구재현(1)	110	최도희	19 청년부	김석영(7)	126	조지현	19 대학부	이민희(1)
95	최영숙	5 청년부	이진관(1)	111	서정원	1 청년부		127	한지은	19 대학부	최후성(3)
96	안연숙	6 장년부	이진관(1)	112	이희원	1 청년부		128	윤은아	19 대학부	장영진(3)
97	송영명	6 장년부	이진관(1)	113	김경현	19 대학부	서단배(15)	129	이연나	19 대학부	김여미(1)
98	이혜진	7 청년부	이진관(6)	114	이은진	1 청년부					
99	임창수	7 장년부		115	황정원	1 대학부	이인성(1)				

※ 순회교회의 한 구역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세자록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